

스토리

에스테리아[Esteria] 탄생



세상에는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있었습니다 빛의 신은 4가지 원소[수(水), 화(火), 풍(風), 토(土)]사용하여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물, 불, 바람, 대지의 힘을 이용하여 새로운 대지를 만들며, 이 네 가지 원소는 각각의 특성과 힘을 지니고 있었고, 그 힘을 이용하여 새로운 생명체와 육지, 바다, 하늘을 창조해 **에스테리아[Esteria]** 라는 세계를 만들어 냅니다

빛의 신은 균형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4명의 원소의 정령[±정령]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정령들은 에스테리아에 살면서 인간을 창조하며, 인간들에게, 물, 바람, 대지의 능력을 각각 사용할 수 있게 힘을 불어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네 개의 원소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능력을 바탕으로 **불의 왕국** 카르메리아, **물의 왕국** 실마리스, **바람의 왕국** 에레스시아, **땅의 왕국** 그라니스 라는 네 개의 왕국을 만들어 성장하고 번영했습니다

각각의 왕국은 하늘이 보이는 절벽, 시원한 강, 불타는 땅, 그리고 울창한 숲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네 개의 정령은 각 왕국을 보호하고 지원했습니다 인간들은 이 네 개의 원소를 이용하여 기술과 마법을 발전시키며 빛의 신과 정령들을 숭배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둠의 지배



어둠의 신은 빛의 신이 창조한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보고 엄청난 힘에 대한 탐욕을 키우게 되며 그러한 힘을 얻기 대립을 시작했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그 힘을 손에 넣기 위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빛의 신은 어둠의 신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어둠의 신은 말라카르 라는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 에스테리아에 보내어 모르타스라는 세력을 조성했습니다 모르타스는 어둠의 힘을 더욱 확장시키고, 빛의 신을 봉인하여 에스테리아의 어둠 속으로 가두었습니다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악으로 물들지 않겠지만 빛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원소 정령들 또한 어둠의 영향을 받아 악의 힘으로 변해갔습니다

각각의 정령은 악령이 되어 각 왕국의 왕들의 몸속으로 침투하여 그들을 조종하고 세상을 흑으로 물들이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네 개의 정령이 각각의 왕국을 통제하면서 어둠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지고, 에스테리아는 악의 세력 아래에 무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지구인의 희망



에스테리아는 어둠의 그림자 아래에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희망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네 개의 왕국의 생존자들은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결심을 하였고, 그들은 휴블이라는 세력을 조직하여 빛으로 악화된 정령들을 정화시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빛의 속성을 지니게 하기위해서는 아무 속성도 부여받지 않은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에스테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행이도 지구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속성도 부여받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며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단순히 지구에 사는 누군가 한명을 소환해 빛의 속성을 부여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남아 있는 생존자들은 힘을 모아 지구인(플레이어)을 소환하고 빛의 속성을 부여하게 합니다

지구인(플레이어)은 이세계를 구하는 여정에 동참하게 되고 어둠의 영향을 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리고 에스테리아를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구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찬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알립니다

평화와 행복 그리고 끝



많은 여정 끝에 강해진 지구인(플레이어)은 빛의 힘을 이용해서 각각의 네 곳의 왕국을 들러 악으로 물든 네 명의 정령을 정화하고 원소에 힘이 담긴 무기를 빌려 정령들과 말라카르를 잡는데 성공합니다

봉인된 빛의 신은 다시 돌아오게되고 어둠의 신은 자신의 분신인 말라카르가 다쳐 힘이 약해져 버렸고 빛의 신은 네명의 정령들과 지구인(플레이어)과 함께 맞서 어둠의 신을 물리치는데 성공합니다

평화가 찾아오고 망해가던 왕국들은 금방 회복을 찾게됩니다

네명의 정령들과 빛의 신은 지구로 다시 돌려보내는 포탈을 만들어주고 지구로 가게 되면 부여받았던 빛의 속성은 사라지게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들은 지구인(플레이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힘들었지만 정이 들었던 에스테리아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작별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지구에 돌아온 지구인(플레이어) 가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지구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있었던 일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 세계가 평화로워진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에스테리아에서의 그동안 배운 것들을 심어가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의 모험은 끝났지만, 그곳에선 용기와 희망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서며, 그 세계에 남긴 희망의 빛은 영원히 이어져 갈 것입니다